

안녕하세요. 31회 법무사 최종 합격자 김0희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 1차 도전 및 합격, 2차 도전 2025년도에 2차 기득권으로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저는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법에 흥미가 없어 타 전공을 복수전공하며 20살-21살 까지만 법 공부를 하고 이후에 법 분야를 멀리 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입사하고는 민사집행(경매, 압류추심 등) 분야를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2024년도 3월부터 일을 쉬게 되어 남편의 권유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기간동안 임신, 출산, 신생아 육아를 병행하게 되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2. 1차 시험

(1) 2024년 3월~5월

박문각 2025년 올패스를 끊고 2025년도에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법-이혁준, 헌법- 이재영,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 김경태, 상법- 이상수, 가족관계법- 김지후,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상업등기법- 김경중 강사님으로 선택하였습니다. 6월 초까지 가족관계법 제외 전과목 기본강의를 2배속으로 듣고, 기본서를 1회독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법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기로 정했습니다.

(2) 2024년 6월~7월 초

모든 과목의 기본서를 1-2번 더 정독하고 정리하며 공책에 과목당 5페이지 내외로 목차와 그에 해당하는 외워야 될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10페이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과목이 마무리되면 법무사 5개년 기출 문제집을 풀어 보았습니다.

(3) 2024년 7월 초 ~ 8월 말

기본서를 1번 더 빠르게 정리하고 제가 정리한 노트를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나온 법무사 기출, 법원행시 등 관련시험의 기출문제를 2번 반복하여 풀어보았습니다. 정답이 아닌 지문도 OX 를 체크하며 정리했습니다. 2주전에는 틀린 문제만 반복하여 정리했습니다.

(4) 1차 결과

1차 결과는 '헌법/상법 74점, 민법, 가족관계법 76점, 민사집행/상업등기법 64점, 부동산등기법/공탁법 78점' 이었습니다. 그해 합격선이 60점이었으므로 평균 73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3. 2차 시험

(1) 동차 준비

가채점 결과 합격이었기에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9월 중 이론강의를 빠르게 듣고, 10월 중에는 학원 모의고사만이라도 보고 들어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의는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부동산등기법/부동산서류- 김기찬, 형법- 이재영, 형사소송법- 김영환, 민사서류- 이천교 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중순에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초기 심한 입덧과 쏟아지는 졸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전까지 이론강의와 1차자료 프린트물만 조금 훑어본 상태로 시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모의고사에 더 중점을 뒀서 공부했다면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기득권 준비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기본서 회독과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앉아있으면 배가 뭉치는 증상 때문에 오래 앉아있을 수 없어서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월에는 출산 후에 2순환 모의고사가 시작되었는데, 업로드된 정답지를 그대로 옮겨 적더라도 무조건 제출은 하자는 마인드로 답안지 적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6월말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셨고, 주말에는 남편이 아기를 봐주었습니다. 저녁과 새벽시간에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기 때문에 제가 아기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민법 48.5점, 형법 23.5점, 형사소송법 24.75점, 민사소송법 40.5점, 민사서류 16.5점, 부동산등기법 43.25점, 등기서류 21점으로 합격(평균 54.5점)이었습니다.

4. 마무리

힘든 수험생활이었지만 가족들이 응원해주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모두 포기하고 육아를 도와준 친정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